

<황해권 중 · 한 교류의 역사, 현황과 미래>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한국학연구

<황해권 중 · 한 교류의 역사, 현황과 미래>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한국학연구

주필 이용해

민족출판사

서 언

2005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중국해양대학에서 「황해권 중·한교류의 역사, 현황과 미래」 국제학술토론회를 가지었다.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의에는 중국과 한국의 학자·교수 9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토론하였다. 산둥반도의 한국학 분과에서는 중·한문화교류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해 연구·토론되었으며 문학연구와 중·한교류 분과에서는 통일적인 문학사 편찬을 대비하는 일련의 문제들과 문학교수 면에서 존재하는 이론과 창작실천의 괴리 등을 비롯한 일련의 문제 해결대안, 그리고 문학교육과 언어교육, 문학교육과 문화교육을 여하히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방책들이 연구·토론되었으며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분과에서는 문법교수방법을 비롯한 한국어 교수방법과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부딪치는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법·개선대안들을 토론·탐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문법교재·어학사교재·교수용 참고서 등 교재개발에서의 문제점들과 그 해결방안을 토론·탐색하였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에서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수와 교재편찬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그 연구 성과는 앞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수 질을 한층 더 유효하게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서 우수한 논문들을 추려서 『한국학연구』 국제학술토론회의 논문 특집을 펴내게 된다.

편집원칙은 한국의 현행규범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일부 논문들은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음을 알리

는 바이다.

편집자의 수준제한으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라면서 이 논문집이 향후 우리들의 한국어·문학 교양과 교재편찬에, 그리고 중한 양국 학자들 간의 교류에 적극적인 역할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어려운 출판계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살리기와 우리 얼 찾기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민족출판사 조문편집실에서 우리들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도와주셨기에 대회의 논문들이 이렇게 책의 형태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이 책 출간을 빌려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후원해 준 한국 국제교류재단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06년 10월 18일

이용해

차 례

서 언

제1편 언 어

의존구의 문법화 현상과 한국어 교육	성기철	3
공간 어휘를 중심으로 본 한국어의 유형적 분석	이 숙	20
한국에서의 도교문화의 영향	염광호	30
『농가월령가』의 어휘 문체론적 특성	강용택	42
15세기 관형구조의 의미적 융합에 대한 고찰	강보유	51
이조후반기 차용어의 양상과 그 특징	김병운	63
y韵母的产生年代与朝鲜文献的对音	金基石	79
韓國의 이른 시기 外國語 辭典類에 대하여	양오진	88
언어의 화용 의미와 그 문화 전승	이용해	109
문법환경소로 고찰한 ‘면’과 ‘거든’의 구별	장광근	119
모음 ‘ㅞ」ㅟ’의 지리 언어학적 분포에 대한 고찰	황대화	136
한국의 국어 정책 연구	최용기	145
함북 명천 방언 중 ‘Xri(u)다’류 용언의 불규칙 활용 양상	이춘영	159

제2편 문 학

現代社會에서 文學文化的 位相과 韓中交流	禹漢鎔	175
허난설헌 시의 수용과 변화에 따른 정체성 찾기	김명희	192
루쉰과 이광수의 신 윤리관 비교 연구	최병우	211

‘삼국지연의’와 판소리 「적벽가」의 거리	정병헌	230
1930년대말 카프 작가와 ‘근대’:		
『대하』, 『탑』, 『봄』의 경우	유문선	251
로씨야문인 스꾸르킨이 해방전에 수집한		
조선설화에 나타난 조선녀성의 형상	장흥권	269
문학의 이데올로기화와 문학의 굴곡적인 발전	윤운진	285
한·중 모더니즘 소설구성 비교	이명학	300
한국문학의 천하관에 대한 고찰	김승환	314
근대전환기의 한국 문인 양건식과 중국문학	김영금	328
서사를 넘어 해체로	정봉희	344
김광주의 전기 소설 연구	김 철	361

제3편 교육

중국의 한국어 교재 사용 실태 및 연구 현황	김석기	377
한국어 사, 피동 교수 연구	이민덕	398
중한번역과의 목적과 교수법 탐구	김영수	406
중·한 동물 속담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장춘매	415
한국어 보조용언의 교수에 대하여	김용범	429
출판물과 광고에서의 한국어 오용 현상	문영자	445
고급한국어 교수에서의 관용어 교수에 대하여	김성희, 김광수	461
산동반도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	이해영	472
한국문학의 중국 소개 현황과 그 성격	이광재	490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언어문화교육 연구	임명걸	509

제4편 중한교류

글로벌화와 중국 조선족문화의 진로	김호용	523
산동 조선족사회 어디까지 왔나	박영만	539
청도에서 ‘한류’현상과 그 과제 연구	오성애	547
山東省 內 韓國文化의 現況과 展望	김석환	563
明代朝鮮使臣筆下の廟島群島	趙成國	579

제 1 편
언 어

의존구의 문법화 현상과 한국어 교육

성기철(서울시립대학)

1. 들어가는 말

의존구라는 용어는 어휘소와 문법소의 중간 형태에 속하는 준 문법소를 가리켜 이른 말이다. 이런 구성은 의존명사, 보조용언, 문법화 등의 연구에서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동안의 적지 않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엄격한 개념이나 분석 기준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진해 보인다. 이 발표는 준 문법소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분석 기준과 범위 문제를 좀 더 분명히 하여, 한국어 문법에서 준 문법소가 중요한 개념이 되어야 함을 상기시키고, 좀 더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둔다. 한국어 교육에서 의존구는 흔히 문형이라는 이름 아래 뒤섞여 다루어지고 있다. 실용이 중시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실용도 이론적 배경을 외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의존구의 개념

어휘적 요소가 문법적 기능 요소로 변하는 것을 문법화라 한다. 문법화란 그 특성상 역사성을 본질로 하는 것인데, 통시성은 흔히 공시언어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미 중세 국어에서 시작된 ‘-어/아 잇-’의 문법화는 오래 전에 완성되었지만, 현대 국어에서 여전히 그 한 모

습을 찾아 볼 수 있다.)¹⁾

- (1) 바다에 배가 떠 있다.
- (2) 바다에 배가 뗏다.

시제 형태 ‘-었-’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 잇-’이 문법 형태화해 가는 단계가 있었다. 시제 형태로 고정되기 이전의 과도 단계에 있는 ‘-어 잇-’과 같은 형태는 하나의 문법 형태도 아니고, 단어도 아니며, 그렇다고 구도 아닌, 그 중간 형태였을 것이다.

다음 예들에서도 그러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 (3) 나도 가고 싶다. (‘-고 싶-’)
- (4) 철수는 지금쯤 점심을 먹을 것이다. (‘-을 것이-’)
- (5) 철수는 내일 갈 모양이야. (‘-을 모양이-’)

위에 보인 밑줄의 세 형태는 본래 언어 형태라고 할 수 없다. 어느 것도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분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각에 따라서는 밑줄 요소가 하나의 서법성 복합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경우, 이들은 비로소 하나의 새로운 문법 단위로 재구조화되어, 독립된 구성 성분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아직은 문법 형태로 정착된 것은 아니다. 문법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을 것이-’의 경우에도, 여전히 관형형 어미, 의존명사, 서술조사 [계사]²⁾ 등이 인식되는 것은 이를 입증해 준다.

이처럼 구 내부의 어휘 요소가 인접 성분의 일부인 문법 형태와 배합하여 재구조화됨으로써, 하나의 의존적 문법 형태로 기능하면서도, 완전한 문법 형태로 정착되지 않은 새로운 문법 단위를 의존구라 명명하고자 한다. 결국 의존구는 준 문법소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언어 형태를 어휘소와 문법소로 양분하지만, 적어도 3분법은 적용되어야 한

1) 이성하(1998: 47-53)는 한국어 문법화 연구의 많은 목록을 제시하였음.
 2) 필자는 ‘-이다’를 서술조사로 명명한다. 학교 문법의 서술격조사란 명명의 모순을 피하면서 ‘-이다’의 본질과 한국어 교육을 함께 고려하였다.

다.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 준 문법소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 야 한다.³⁾ 의존구는 대체로 서법, 상, 사동, 피동 등의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보통인데, 그 형태적 구조나 통사 구조에서 다양한 특성 또는 제약을 가진다. 그리고 일단 의존구가 되면, 선행 성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명제 전체와 관련된다. 또 동일한 의존구 또는 동일 계열의 의존구라고 하더라도, 문법 형태적 의미 특성은 의존구의 형태 또는 쓰임에 따라 문법화의 정도를 달리 하기도 한다.

3. 의존구 분석 기준

3.1 의미상의 특성

복잡한 특성의 의존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어휘 요소의 의미 문제로, 이것은 곧 문법화와 관련된다. 한 예로 자립성이 없이 다른 용언에 후속하여 서법, 상, 사동 등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용언을 보기로 한다.

(1) 나도 가고 싶다. (‘-고 싶-’)

위의 ‘싶다’는 형용사지만, 자립성도 없고, 서술어도 될 수 없어 보조형용사로 처리된다. 그 의미만으로 보면, ‘바람[願望]’의 의미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보조적 형용사는 될지언정, 의존구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의존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와 배합된다. ‘싶다’는 ‘-고’의 선택을 필수로 하면서, ‘바람’과 같은 서법성 의미를 나타내므로, ‘-고 싶-’은 의존구로 분석된다.⁴⁾

어휘 중에는 어휘 의미와 문법적 의미를 함께 하는 것이 있다. 부

3) 안주호(1997:100)에서는 이러한 구성을 접어 구성이라 하였는데, 접어의 개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명명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4) ‘싶다’는 분포상 어미 ‘-고’만을 선택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나’, ‘-는가’, ‘-지’ 등을 택하면 ‘짐작’과 같은 의미가 되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그래서 ‘-고 싶다’의 형태로만 ‘바람’의 서법성 의존구가 된다.

분적인 문법화라고 할 수 있다.

- (2a) 이 그림은 귀족들이 사냥을 하는 모양이다.
- (2b) 철수는 이 친구가 좋은 모양이다.

a의 ‘모양’은 어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b의 ‘모양’은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와 후행하는 서술조사 ‘-이-’와 함께 쓰여 짐작, 추정 등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에는 ‘-은/는/을 모양이’를 의존구로 분석할 수 있다.

- (2c) 이벽화는 결혼식을 하는 모양이다.

위의 예문은 중의성을 띠고 있다. 하나는 ‘모양’을 그 어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는 모양이-’를 ‘추정’의 서법성 의미를 가진 의존구로 이해하는 것이다.⁵⁾ ‘-있던/은/는/을 것 같다’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의존구이다.

3.2 구조적 특성

의존구가 형성되면, 여기에는 다양한 성격의 특수성 또는 제약이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의존구 분석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⁶⁾

- (3) 그 책은 비쌀 거야. (‘-을 것이-’)
- (4) 나는 이제 술 그만 마실 테야. (‘-을 터이-’)

(3)와 (4)의 ‘-을 것이-’와 ‘-을 터이-’는 각각 의존명사 ‘것’과 ‘터’가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을’과 후행하는 서술조사 ‘-이-’와 함께 하는 경우에만 의존구로 분석될 수 있다. 물론 그런 경우라고 해서 항상 의존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5)와 같은 예는 중의성이

5) 이런 해석의 경우, ‘이벽화는 결혼식을 한다.’와 같은 담화적 문장 또는 화용적 문장이 전제된다.
6) 의존구와 관련된 형태, 통사 구조의 특성은 국어문법서를 포함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서정수(1969), 고영근(1989), 안주호(1997), 기타.

있어서, ‘것’을 완전한 의존명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을 것이-’의 형태로 추정을 나타내는 의존구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둘을 구분하는 데는 의미 기준이 함께 고려된다.

(5) 이 음식은 우리가 점심에 먹을 것이다.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있)던/은/는/을 듯하다’와 같은 경우, 이들이 하나의 의존구인가, 네 개의 의존구인가 하는 문제다. 기본적으로 관형형 어미란 것이 시제성과 명사 수식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형태에서 공통된 것은 수식 기능이다. 이렇게 볼 때, 의존구가 되는 것은 ‘명사 수식 기능 어미 + 듯하다’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3 의존구와 통사 구조

한 문장에서 의존구의 분석이 해당 문장의 통사 구조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경우가 있다. 위 예문 (3)에서, 형식상으로 보면 서술어는 ‘것이다’인데, 그 주어를 상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⁷⁾ 이러한 구조상의 문제점은 의존구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비쌀 것이다’를 서술어로 상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

하나의 문장에서도 어떤 구성을 의존구로 이해할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해당 문장의 구조 해석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

(6a) 여기서 우리가 빨리 탈출하는 수(가) 있어. (‘-을 수 있-’)

(6b) 여기서 우리가 빨리 탈출할 수 있어. (‘-을 수 있-’)

a에서 ‘수’는 어휘적 의미인 ‘방법’의 의미가 부각되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이 주어는 ‘우리’를 주어로 하는 관형절[밑줄]의

7) 임흥빈(1985)에서 ‘것이다’의 주어로 ‘상황’ 같은 것을 설정했지만, 분석적 해석을 위한 노력의 하나일 뿐 무리가 크다.

8)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에서 접근한 연구를 안주효(1997)에서 볼 수 있다. ‘4. 문법화 제2 단계’ ‘접어 구성’ 참조.

수식을 받는다. 그러나 b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을 수 있-’을 서법성의 의존구로 해석할 경우에는, ‘우리’는 전체 문장의 주어이고, ‘탈출할 수 있어’가 그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4. 의존구와 문법화

의존구라는 명칭 자체가 이것이 어휘적 특성이 아닌 문법 형태적 특성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의미를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로 구분할 때, 이 둘이 항상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어휘성이 약한 어휘가 많은 반면, 어휘성이 없지 않은 문법 형태가 있으며, 양자 사이에는 이론상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 (1a) 철수가 이것도 마저 먹어라.
- (1b) 철수가 이것마저 먹어라.
- (2a) 달이 가는 듯이 가는 나그네.
- (2b)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1a)의 ‘마저’가 부사인 반면, (1b)의 ‘-마저’는 조사이고, (2a)의 ‘-듯이’가 명사인 반면, (2b)의 ‘-듯이’는 어미이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두 형태는 그 의미 또는 기능이 거의 차별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격조사라고 해도 어떤 격조사는 주로 격기능을 가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격조사는 보조조사적 의미 또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3)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 (4) 나는 학교에 간다.

(3)의 ‘-를’이 목적격 표지이고, (4)의 ‘-에’는 처소격 조사지만, 전자는 강조와 같은 보조조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후자는 단순한 격기능을 가진다기보다 ‘장소’의 어휘적 의미를 가진다.

(5) 비가 올 듯하다. (‘-을 듯하-’)

외형상 이 문장의 구조는 매우 특이하다.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형용사가 왔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구조 특성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표기 방법상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 구조 분석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그 주된 이유는 명사 ‘듯’의 명사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데 있다. 그 결과 ‘듯’을 명사로 이해하는 방법, 어미의 일부로 보는 방법, 표기대로 이해하는 방법 등 몇 가지 처리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는데,⁹⁾ 이러한 현상은 바로 문법화에 기인한다.

변천이란 것이 항상 과정과 정도를 특징의 하나로 한다. 문법적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의존구도 문법화 과정상에서 많은 정도의 차이를 보여 준다.

(6) 곧 칠수가 올 것이다. (‘-을 것이-’)

(7) 나도 그 문제는 풀 수 있다. (‘-을 수 있-’)

(8) 비가 올 모양이다. (‘-을 모양이-’)

위 문장에 나타나는 세 밑줄 부분은 문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모두 의존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을 것이-’는 문법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이어서, 대표적인 의존구의 특성을 보여 준다. 여기서 ‘...올 것이다’를 구의 형태로는 그 구조 해석이나 의미 해석이 한가지로 매우 어렵고, 의존명사 ‘것’의 어휘적 의미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을 수 있-’은 ‘수’ 및 ‘있-’의 어휘적 의미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수’의 의미는 ‘방법’과 멀지 않다. 그러므로 ‘풀 수 있다’는 구로서의 의미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지만 관점을 달리 해서 보면, ‘-을 수 있-’의 형태로 재구조화하여 ‘가능’이라고 하는 서법성 의미를 가진 의존구의 해석도 가능하다. 마지막의 ‘-을 모양이-’는 ‘...올 모양이다’의 구의 형태로 이해할 때, 전자보다도 더 어휘적 의미 해석이 뚜렷해 보인다. 즉 구의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태 역시 ‘추정’이라는 서법

9) 어미 ‘-을 듯’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것은 한국어 통사 구조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 된다.

성 의미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5), (6), (7)의 순으로 완전한 구의 특성이 분명해지며, 그 역의 순으로 의존구로서의 문법적 의미 특성이 부각된다.

동일한 성격의 의존구들이 같은 문법 형태의 의미 특성을 가지면서도, 문법화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 (9a) 철수도 간 거야./? (간 것이야)
- (9b) 철수도 가는 거야./? (가는 것이야)
- (9c) 철수도 갈 거야./? (갈 것이야)

위에 보이는 ‘-은 것이-’, ‘-는 것이-’, ‘-을 것이-’에서 의존명사 ‘것’의 어휘성은 별로 발견되지 않으며, 이들이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및 후행하는 서술조사(계사) ‘-이-’와 결합하여, 하나의 의존구로 재구조화되어 ‘확인, 확정, 다짐’ 등과 같은 서법성 의미를 나타낸다. 다만 시제성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의존명사 ‘것’에 선행하는 어미나 후행하는 ‘-이-’가 없이는 결코 추정의 의미가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거나 현재 시제성의 관형형 어미를 가진 앞의 둘보다는 미정성 또는 추정성의 관형형 어미를 가진 마지막 형태가 더 분명한 문법 형태로서의 특성을 보여 준다.¹⁰⁾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의존구와 관련된 문법화의 또 다른 한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10) 영이도 철수가 먹은 것을 먹었다.
- (11a) 영이도 철수가 영자를 좋아한 것을 알고 있다.
- (11b) 영이도 철수가 영자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

(10)의 ‘것’은 그 의미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선행하는 관계절 ‘철

10)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우선은 의존구로서의 사용 빈도를 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이 형태가 본래의 의미인 ‘확인’, ‘확정’, ‘다짐’ 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사한 ‘추정’의 의미를 가지면서 똑 같이 빈도가 높은 ‘-겠-’과 짝을 이루어 사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가 먹은'의 목적어로, 그 의미는 어떤 먹을 것을 가리킨다. (11)의 '것'도 형식상으로는 '알다'의 목적어로, '철수'를 주어로 하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고 있는데, 명사로서의 의미는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다.

좀 시각을 달리 해서 보면, 이 '것'은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은', '-는'과 더불어 하나의 명사형 어미(명사구 보문소)에 준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명사형 어미 '-음'이나 '-기'와 유사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자가 의존명사로서 어휘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음에 비해, 후자는 의존구의 형태로 문법적 기능을 보여 주고 있다. 후자에서 '-은'이나 '-는'이 결여된 '것'만으로는 결코 의존구로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법 형태의 해석도 불가능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12a) 그 사람은 나도 잘 아는 터다.

(12b) 우리가 서로 잘 아는 터에 그런 일로 다룰 수는 없지.

(13) 나는 곧 회사를 그만 둘 테다. ('을 터이')

위 예에서 의존구 '-는 터'와 '-을 터'를 분석할 수 있을 범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13)에서는 '-을 터이'의 형태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의문문이 되면 청자의 의도가 된다. 그런데 (12)에서는 '-을 터이'가 아니라 '-는 터'의 형태로 분석이 되며, 그 의미는 의도도 아니다. 이처럼 선행 어미의 시제성의 차이가 전혀 다른 의미 해석을 가져오기도 한다.

5. 의존구의 유형

5.1 기능에 따른 분류

5.1.1 敍法性 의존구¹²⁾

(1) -은/는/을 것아-(추정) (2) -고 싶-(원망)

11) '-는 것'을 명사구 보문소로 이해하는 것은 과거의 몇몇 논의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12)의 의존구와 유사한 것으로 '-은/는/을 줄'이 있다.

12) 편의상 이하에서 소수의 예만 제시한다.

(3) -을 터이- (의도)

5.1.2 상성(相性) 의존구¹³⁾

- (1) -고 있- : 동작 지속(진행), 상태 지속
- (2) -어 있- : 상태 지속
- (3) -어 버리- (폐기적 완료)

5.1.3 사동성 의존구

- (1) -게 하-
- (2) -도록 하-

5.1.4 피동성 의존구

-어 지-

5.1.5 전성 어미성 의존구

- (1) -은/는/을 것: 비가 온/오는/을 것을 몰랐다.
- (2) -은/는/을 줄: 비가 오는 줄 몰랐다.

‘-은/는/을’은 시제성을 가진 관형형 어미인데, 의존명사 ‘것’이나 ‘줄’이 이들과 결합함으로써만 명사형 어미의 속성을 가진 의존구가 된다.

5.2 구성 성분에 따른 분류

5.2.1 어미 + 보조용언

1. 어미 + 보조동사

- (1) -어 보-(시험)

13) 고영근(2004)에서는 ‘보조용언의 상적 기능과 양태적 기능’이라고 한 것을 보아, 근본은 보조용언에 두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 동작상 체계에 이들 보조용언을 포함한 의존구들을 넣고 있어, 중심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어 보인다.